

사회

“하늘나라엔 불법 체류 없겠죠”
가나 노동자의 쓸쓸한 죽음

잡혀갈까 뇌염 치료 미뤄... 가족 못 보고 투병 52일만에

뇌염으로 인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아프리카 가나 출신의 외국인 노동자(광주일보 11월 17일 6면)가 투병 52일만에 숨졌다. 이 노동자는 불법 체류자란 신분 탓에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채 홀로 쓸쓸한 죽음을 맞이했다.



돌공장에서 일했다. 비자 기간이 지난 2007년부터는 불법 체류자 신분이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올해 초 광주로 옮겨와 하남산단의 한 공장에서 일했다.

프랭크씨는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 13시간을 일한 대가로 140만원 가량의 월급을 받아왔다.

프랭크씨는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을 꼬박꼬박 고국에 있는 가족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프랭크씨가 뇌염 증세를 보인 것은 지난 10월 초. 하지만 불법 체류자 신분인 프랭크씨는 열흘 뒤인 13일에야 처음으로 병원을 찾았다. 의료보험이 없어 병원에 갈 엄두를 내지 못한 것이다.

또 불법 체류자들의 경우 아는 사람을 통해 소개를 받지 않으면 병원조차 가기 어렵다는 점도 프랭크씨의 병이 깊어진 원인이 됐다.

결국 뇌염 초기에 치료를 받지 못한 프랭크씨는 스스로 몸을 움직이지 못할 만큼 상태가 나빠졌다. 함께 방을 쓰던 외국인 근로자 친구의 부축을 받아 외국인근로자 문화센터를 찾았지만 입원 직후 의식을 잃고 투병생활을 해왔다. 불법 체류자 신분은 숨겨려다 병을 키운 것이다.

프랭크씨와 함께 방을 쓰던 가나 출신 아사모아(47·가명)씨는 “비싼 진료비와 불법 체류자 신분 때문에 가까운 병원조차 가지 못했다”며 “고통스러워 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내내 가슴이 너무 아팠다”고 울먹였다.

프랭크씨가 입원한 뒤 52일간 진료비는 총 3000만원 가량. 이 가운데 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는 모금운동을 통해 조성한 1800만원을 병원 측에 건넬 예정이다. 기독교 병원 측도 1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천영 광주 새남학교 교장은 “프랭크씨가 초기에 진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해 안타깝다”며 “그동안 프랭크씨를 도와주신 많은 분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광주 아파트 변전시설 침수... 전기·수돗물 중단

766세대 암흑의 밤 추위 ‘덜덜’

서구 치평동 쌍용금호... 19시간만에 전기 공급 재개

광주의 한 아파트의 변전 시설이 침수되면서 전기와 수돗물 공급이 중단돼 입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5일 광주 서구와 치평동 쌍용금호아파트 입주민들에 따르면 이날 새벽 1시께 쌍용금호아파트에서 전기와 수돗물 공급이 중단됐다. 쌍용금호아파트에는 모두 9개 동 766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전기 공급이 중단된 이유는 아파트 지하실에 설치된 물탱크 센서가

고장나 3000t 가량의 물이 넘치면서 변전 시설이 침수됐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과 상수도사업본부는 이날 긴급 복구반 200여명을 편성해 복구작업을 벌였으나 이날 오후 7시50분께야 전기공급을 재개했다. 앞서 이 아파트에는 비상 발전기가 가동되면서 승강기만 정상 작동된 상태였다.

입주민들은 전기·수돗물 공급이 20시간 가까이 중단되면서 난방을 하

지 못해 추위에 떠는 등 큰 불편을 겪었다.

입주민 김모(여·35)씨는 “새벽부터 갑자기 전기와 수도 공급이 끊겨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찜질방에서 하루를 보냈다”고 말했다.

한편,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침수 직후 한전 측에 연락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였다”면서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혀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구제역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5일 오후 장성 요금소 앞에서 장성군 방역관계자들이 통행차량들에 대해 소독작업을 벌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안동 구제역 확산... 전남도 차단 방역 비상

경북에서 발생한 구제역 사태가 1주일이 지나면서 인접 지역으로 확산 추세를 보이자 당국이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그동안 안동에서만 머물던 구제역이 이날 처음으로 외지인 경북 예천에서도 확인되는 등 지난달 29일 구제역 첫 발생 이후 지금까지 발생건수가 총 30건으로 늘었다.

특히 양성반응이 나온 예천 한우농가는 초기 구제역 발생지로부터 남서쪽으로 21km나 떨어진 '관리(20km 이내) 바깥 지역'이어서 안동 구제역이 방역망을 뚫고 타 지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지난 1일자로 도내 13곳의 가축시장을 잠정 폐쇄한 데 이어 도내 유입 주요도로 27개소에 방역초소를 설치하고 매주 수요일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일제소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이를 위해 도내 591개 공동방제단과 방역장비 1730여대를 총동원 하는 한편 예비비 등을 긴급 확보해 방역초소 운영에 필요한 소독약품, 유류비, 인건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안방선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의심되는 소를 발견할 경우 가까운 행정관서나 가축 방역기관에 신속히 신고(국번없이 1588-4060)해달라”고 당부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새벽 캠퍼스 기숙사 앞
여대생 연쇄 납치 시도

남부경찰, 30대 구속

새벽시간대에 대학 캠퍼스에서 기숙사로 들어가는 여대생들을 끌고 가려한 3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광주남부경찰은 5일 대학교 안에서 여대생을 강제로 끌고가려고 한 김모(33·광주시 남구 송하동)씨를 감금미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8일 새벽 1시부터 같은 날 새벽 1시30분까지 광주 모 대학교 여자기숙사 앞에서 기숙사생 정모(여·20)씨 등 2명

을 차례로 자신의 차량에 강제로 태우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대학교 정문 앞을 배회하던 중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기숙사로 가기 위해 교내로 들어간 정씨 등을 발견하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찰은 김씨와 지난 2006년 연쇄 성폭행 사건과의 연관 여부를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김씨의 DNA 감정을 의뢰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가수 크라운제이 대마초

유비 촬영 미국 체류 중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는 5일 국외 체류 중이던 대마초를 사 파은 가수 크라운제이(31·본명 김계훈)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최근까지 음반작업과 뮤직비디오 촬영 등으로 미국에 머물면서 현지에서 구한 대마초를 수차례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에서 “최근 한 두번 피워봤을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미국에서 김씨와 함께 대마초를 피운 연에게 관계자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나원침 (8188) 김종두



기아차 광주공장 노조 5명
공장 신축 방해 벌금형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현 판사는 5일 기아차 광주공장 신축공사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광주지회 남모(45) 지회장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광주지회 수석부지회장 류모(34)씨 등 기아차 광주공장 노조 간부 4명에 대해서도 각각 200만~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기록과 법정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남씨 등은 조합원 50명과 함께 공사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남씨 등은 임금협상 결과와 사측의 중추 공사 강행에 반발해 지난해 12월 22일부터 5차례에 걸쳐 광주지부 구 내방동 기아차 광주2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차량 진입을 막는 등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탈린트 김성민 필로폰 투약 구속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희준)는 4일 필로폰을 투약한

탈린트 김성민(36)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최근 외국에서 구입한 필로폰을 서울 강남구 자택 등지에서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95년 연극 배우로 데뷔한 이후 MBC 드라마 ‘인어아가씨’와 ‘왕꽃 선녀님’에 출연해 인기를 모았던 김씨는 이번 사건으로 KBS 2TV ‘해피선데이-남자의 자격’에서 하차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군산CC ‘그린 습격사건’

프로골퍼 선발대회 중 5개에 100여군데 삽질

‘누가 그린을 파헤쳤을까?’

국내 프로골퍼 출신 선발대회가 열린 군산의 한 골프장 그린에 훼손과 경철이 수사에 나섰다.

5일 군산경찰과 군산 컨트리클럽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7시께 군산시 육서면 군산 컨트리클럽 골프장 그린 5곳에 지름 15cm, 깊이 10~20cm 가량의 구멍이(사진)가 나 있는 것을 직원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훼손된 곳은 총 81홀 중 시험이 벌어졌던 5개 홀의 그린 100여 곳이다. 이 골프장에서는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주최로 지난달

23~26일 예선을 거처고서 30일부터 4일 일정으로 내년도 국내 프로골퍼 선발대회가 출전할 선수들을 선별하는 ‘2011 코리아 리안투어 큐스쿨’ 본선이 진행됐다.

주최 측은 복구반 80명을 긴급 동원, 2시간30분 만에 복구작업을 마쳤다. 이 때문에 대회는 예정시간보다 2시간30분 늦은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시작했다.

이 골프장 정문과 실내를 제외한 홀 주변에는 CC-TV(폐쇄회로)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구멍이가 삽 모양으로 파헤쳐져 있는 것으로 미뤄 누



군가 삽을 이용, 고의로 훼손한 것으로 보고 주변인 등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하고 있다.

경찰은 또 전체 81홀 중 대회가 열리는 홀 5곳만 집중적으로 훼손된 점으로 미뤄 성적이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광주댐서 돌 넣은 배낭 묶인 남성 변사체

5일 오후 2시10분께 광주시 북구 석곡동 광주댐 상류저점에서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의 시신이 수면 위에 떠 있는 것을 낚시꾼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이 남성은 등산용 재킷

과 검은색 계통의 바지를 입은 채 배낭을 메고 있었으며, 철제로 된 지름 0.5cm 크기의 와이어가 목과 배낭을 시신에 수면 위에 떠 있는 것을 낚시꾼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시신에서는 구타 흔적이나 상처 등

별다른 외상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별다른 외상 흔적이 없는 점과 배낭 안에서 의약품이 발견된 점으로 미뤄 이 남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Shin Yang Park Hotel Dinner Show 해바라기 2010. 12. 16(목) 19:00 신양파크호텔 1층 그랜드 볼룸 Sunflower Dinner Show ₩150,000원(VAT포함) ※ 15세 미만은 입장이 불가능 합니다. 주최및주관 (주)대양인투스 신양파크호텔 예약및문의 T. 062) 228-4711~2

Merry Christmas christmas family buffet 12월 24일 | 18:00~21:00 12월 25일 | 12:00~15:00 대인 | 30000 (VAT포함) 소인 | 20000